

순천시, 공공건축물 기획부터 시공까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공건축가 6명 위촉 및 민간전문가 제도 워크숍 “도시 경관·건축 문화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

순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의 유기적 연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부터 시공까지 민간전문가의 종합적인 자문을 받는다. 시는 최근 '건축기본법'에서 정한 민간전문가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

해 공공건축가 6명을 위촉하고,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주시 총괄건축가로 활동 중인 신춘규 건축사가 민간전문가 제도운영 사례와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도시환경 전문가 전담대 이

민석 교수를 초청하여 순천시가 2007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재정비를 앞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는 내용의 강연과 함께 활기찬 논의가 이루어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범위를 정부지침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해왔고, 이 제도를 통해 우리지역 도시 경관과 건축 문화가 한단계 더 발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2020년에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초 전남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민간전문가 제도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800만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대 최윤경 교수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등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청년지원센터, '고흥청춘누리' 개소

고흥군은 지난 27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 일자리·창업·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인 '고흥청춘누리'를 개소했다. 이날 행사는 송귀근 군수를 비롯해 고흥군의회 송영현 의장과 군의원,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용가능하다. 고흥군은 앞으로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여, 이 '고흥청춘누리'가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는 꿈 키움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꿈 이룸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고교 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

청년 취·창업 상담, 문화·예술·소통 복합문화 공간 행안부 공모사업...청년(만19세~49세) 누구나 이용

체크,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고흥청춘누리는 행정안전부 '20년 지역사회활성화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 5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유건물인 옛 소방파출소(고흥읍 고흥로 1846)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일자리 상담실, 청년협의공간, 예술 전시공간,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청년(만19세~만49세 이하)이면 누구나 이

리 지원사업, '청년 취·창업 및 채용기업 지원 사업',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청년 취·창업과 채용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흥군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원 조성', '가업승계 청년지원', '청년도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으로 청년 고용률 전남 1위, 전국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보성군 회천면, 코로나19 차단 여름철 관광지 주변 방역소독

9월 말까지 방역 기동반 운영

보성군 회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차단 방역 소독에 나섰다. 회천면은 율포솔밭해수욕장, 보성회천수산물위판장 등 관광지 외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등에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방



역 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

단계 격상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살균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남구 회천면장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역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순천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사진신고기간

순천시는 반려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사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다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사망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나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는 순천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자원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사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삼산면 초도 마을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

다음달 12일까지...주민·관광객 교통난 해소 기대

여수시가 국동·고소동·거문도·화정면 마을버스에 이어 5번째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삼산면 초도 마을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선은 초도 예미마을에서 출발해 대동항, 진막마을, 의성마을, 초

도초교, 대동항을 경유해 예미마을로 돌아오는 순환노선이며,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한다. 시는 도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

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5월 노선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고·전라남도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고내용 및 노선도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양시, 벼 병해충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광양시는 최근 장마 이후 온·습도가 높고 비례해충(날아서 오는 해충) 발생량 증가 등 병해충에 의한 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벼 병해충 적기 방제 기간'을 오는 7월 30일~8월 15일(17일간)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흑명나방과 멸구류

가 중국에서의 전파 시기가 작년보다 7~10일 정도 빠르고, 특히 먹노린재 발생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용 약제의 적기 살포가 필요하다. 시는 먹노린재를 비롯한 멸구류, 흑명나방,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을 중점



방제대상으로 정해 현장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